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최 진 주

최
진
주

지도교수 이 은 숙

2
0
1
9
년
8
월

2 0 1 9 년 8 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은 숙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1 9 년 8 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최 진 주

최진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전 원 회

부 심 이 은 숙

부 심 김 상 희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1 9 년 8 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용어정의	4
II. 문헌고찰	6
1. 의사소통능력	6
2. 문제해결능력	8
3. 대학생활적응	10
III. 연구방법	13
1. 연구설계	13
2. 연구대상	13
3. 연구도구	13
4. 자료수집	15
5. 자료분석	15
6. 윤리적 고려	16
IV. 연구결과	17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1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21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24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5

V. 논의	27
VI. 결론 및 제언	33
참고문헌	35
부록	42
영문초록	52
국문초록	56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2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	22
표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24
표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돕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현, 2017).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와는 달리 수강할 교과목 선택,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시간관리 및 인간관계를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함으로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한미현, 2017). 이러한 대학에서의 새로운 요구들에 대한 적응은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적응하지 못할 때는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유무형의 손실이 나타난다(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계열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전공별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학업 이외에도 현장실습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신영, 2017). 간호대학생은 학업 및 현장실습,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 형성,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 윤리적인 행위의 실천 및 간호사 국가고시 등 다양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가 높고(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차남현, 2016; Barbosa et al., 2013; Pulido-Martos, Augusto-Landa, & Lopez-Zafra, 2012; Shaban, Khater, & Akhu-Zaheya, 2012), 적성을 고민하기보다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강민아, 이수경, 2016; 곽혜원, 2018; 양선희, 심인옥, 2016; 황선경, 이윤지, 2015) 대학생활의 학업적,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진아, 이은경, 2011; 최지혜, 박미정, 2013; 한미현, 2017). 간호대학생의 성

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서의 성인 초기 발달 과업 달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능력 있고 높은 임상현장적응력을 갖춘 신규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최지혜, 박미정, 2013) 단순히 학교 적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의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양남영, 문선영,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건강상태(차남현, 2016), 건강증진행위(양남영, 문선영, 2013), 스트레스 대처(박진아, 이은경, 2011; 이난희, 유소연, 2017), 대인관계(송후승, 나은선, 전윤희, 정귀임, 2016), 전공만족도(송후승 등, 2016; 정효주, 정향인, 2012; 최순옥, 박진경, 김상희, 2015),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양남영, 문선영, 2013), 의사소통 유형(이난희, 유소연, 2017)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Cupach & Spizberg, 1983),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적응을 위한 관계의 개선 또는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Ericson & Gardner, 1992)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대인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박미정, 2013; Thomas, 2006),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으면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았고(이난희, 유소연, 2017),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박미정, 2013), 배려공감형 의사소통 스타일을 가진 학생이 예민산만형 의사소통 스타일을 가진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박정원, 정윤희, 2018). 이상의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보다는 의사소통기술 및 의사소통스타일, 의사소통유형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왔으므로 의사소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양남영, 문선영, 2013), 간호대학생들에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희숙, 2006).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상 대부분이 간호사로 취업되기 때문에 임상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은주, 방미란, 전해진, 2013).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2018)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남영과 문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혜원(2018)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 간의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간호 교과목 및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의사소통능력

- (1) 이론적 정의: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다(Rubin, 1990).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ubin (1990)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허경호(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문제해결능력

- (1) 이론적 정의: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이석재 등, 2003)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 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대학생활적응

- (1) 이론적 정의: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과 관련한 생활과 대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대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 애착과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 (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 후 권혜진(2007)이 기존의 9점 Likert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목적에 맞게 적절히 말하고 쓰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며(Hillage, Uden, Aldridge, & Eccles, 2000),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다(Rubin, 1990). 또한 의미를 교환할 때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는 온갖 상징과 행동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데(Satir, 1983), 이는 삶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학교나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 정의된다(McKay, Davis, & Fanning, 1995).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경호(2003)는 의사소통능력을 관계적 능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관계적 능력에는 감정이입, 의사소통 과정 중 자기노출, 지지력, 상호작용 관리에 대한 능력이 포함되고, 대인적 능력에는 주장력, 효율성, 목표 간파, 사회적 긴장완화, 잡음통제력에 대한 능력이 포함되며, 언어적 능력에는 표현력, 반응력, 즉시성, 조리성,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능력이 포함된다(허경호, 2003). 또한 이석재 등(2003)은 의사소통능력의 요소들을 해석 능력, 역할 수행 능력, 자기제시 능력, 목표설정 능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해석능력의 하위요소로는 정보수집, 경청을 포함하고 있고 역할수행능력의 하위요소로는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창의적 의사소통이 포함된다. 자기제시능력에는 자기 드러내기, 목표설정능력의 하위요소에는 주도적 의사소통, 메시지전환능력의 하위요소에는 타인관점 이해가 포함된다(이석재 등, 200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백분위 환산 점수로 평균 73.2점, 71.6점, 70점, 74.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강민아, 이수경, 2016; 신수정, 정면

숙, 2016; 양선이, 2016; 염은이, 2017). 일반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백분위 환산점수로 평균 69.4점(문새롬, 2016; 배순원, 2015),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백분위 환산점수로 평균 68.64점(김선주, 김한홍, 2013)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일반대학생 및 치위생 전공 대학생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으로서 졸업 시 학습 성과로 보장되어야 하는 능력 중 하나이며(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이에 따라 4년제 간호학과 교과과정 중 기초과학분야에 속하는 인문사회과학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론이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개설(85.1%)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미원, 박정모, 한애경, 201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연령, 학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박정원, 최명숙, 2009; 양선이, 2016; 황선경, 이윤지, 2015). 21~25세가 다른 연령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박정원, 최명숙, 2009), 4학년이 1,2,3학년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박정원, 최명숙, 2009; 양선이, 2016),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양선이, 2016),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양선이, 2016), 전공과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황선경, 이윤지, 2015)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정서표현,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새롬, 2016; 배순원, 2015). 또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선주, 김한홍, 20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박정원, 최명숙, 2009; 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2010).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인희, 박미라, 2017; 지은주 등, 2013).

의사소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숙과 강선모(2013)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박정원과 정유희(2018)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스타일에 따라 배려공감형이 예민산만형보다 대학생활적응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난희와 유소연(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나 의사소통능력보다는 의사소통기술 및 의사소통스타일, 의사소통유형과 같은 변수로서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문제해결과정을 거쳐 목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Griffin & Care, 2014),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된다(Kahney, 1986). 문제해결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학문 분야마다 다르게 정의되는데, Heppner와 Peterson (1982)은 내적 혹은 외적인 요구와 도전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였고, D'zurilla와 Nezu (1982)는 일반적으로 대처와 함께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시키는 사건들과 심리적 적응을 다루는 적응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문제해결 과정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분석과 추론이 요구되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으로서(Smith, 1988), 문제를 명료화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생애능력이라 하였다(이석재 등, 2003).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적인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생성적인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과정이다(D'zurilla & Nezu, 1990).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회 영역의 문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문제, 개인적인 문제 등(Heppner & Peterson, 1982)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인지적 과정이다(김희숙, 2006).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적대감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맺게 된다(엄태완, 이기영, 2004).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개인은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해 비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개인보다 심리적 고통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엄태완, 이기영, 2004).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김희숙, 2006).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 학년, 지원동기, 학업성적, 대인관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았고(양선희, 심인옥, 2016; 양혜주, 2013; 정승교, 2011; 지은주 등, 2013), 4학년 학생이 1,2,3학년 학생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승교, 2011).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지원할수록(양선희, 심인옥, 2016),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양혜주, 2013), 대인관계가 좋을수록(양혜주, 2013; 정승교, 2011),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양혜주, 2013).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창의성(이경화, 김은경, 유경훈, 2013)과 대학생활적응(김희숙, 2006; 박미정, 2018)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수행능력(홍지연, 박진아, 2017), 대학적응정도(양남영, 문선영, 201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

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양선희, 심인옥, 2016; 정승교, 2011), 자기효능감(심미정, 오효숙, 2012; 양선희, 심인옥, 2016; 양혜주, 2013), 학습 동기 및 학습태도(심미정 오효숙, 2012)와 같은 학습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미정, 2018).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숙, 2006; 박미정, 20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남영과 문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곽혜원(2018)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능력은 창의성이나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결과가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과 관련한 생활과 대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대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 애착과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학업적 적응,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사회적 지원 조직의 형성,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적 적응,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만족도 및 학업적 목표에 대한 스스로의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환경적응의 네 가지 차원

으로 정의할 수 있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적응은 대학 생활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효주, 정향인, 2012). 특히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간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각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Waldner & Olson, 2007).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임상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박현숙, 정경순, 201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차남현(20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백분위 환산 점수로 평균 67.4점이었고, 인문사회계열은 65.8점, 자연계열은 66.6점, 공학계열은 65점으로 평균점수간의 차이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다소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활 적응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4가지 하위영역 중 간호대학생에서는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고, 학업적응이 가장 낮고, 개인정서적응이 그 다음으로 낮거나(최지혜, 박미정, 2013),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고 개인정서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박진아, 이은경, 2011; 한미현, 2017).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익형과 김창현(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개인정서적응과 학업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학년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었던 반면(차남현, 2016; 최지혜, 박미정, 2013),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안지연, 임희경, 2005; 한미현, 2017)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학년 간 적응 정도에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곽혜원, 2018; 박진아, 이은경, 2011; 박현숙, 정경순, 2013)가 보고되고 있어 학년에 따

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대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연령(정효주, 정향인, 2012; 최순옥 등, 2015), 동아리활동여부(박진아, 이은경, 2011; 송후승 등, 2016; 정효주, 정향인, 2012), 건강상태(송후승 등, 2016; 차남현, 2016), 경제수준(박진아, 이은경, 2011), 가정소득(정효주, 정향인, 2012), 학업성적(양남영, 문선영, 2013; 최순옥 등, 2015), 전공만족도(송후승 등, 2016; 정효주, 정향인, 2012; 최순옥 등, 2015), 대학생활만족도(정효주, 정향인, 2012), 지원동기(박진아, 이은경, 2011; 송후승 등, 2016; 양남영, 문선영, 2013; 정효주, 정향인, 2012; 최지혜, 박미정, 2013), 학업스트레스(차남현, 2016), 전공(차남현, 2016), 성별(박진아, 이은경, 2011; 양남영, 문선영, 2013), 학년(양남영, 문선영, 2013), 종교(양남영, 문선영, 2013), 거주 상태(송후승 등, 2016; 양남영, 문선영, 2013), 학업부담감(최지혜, 박미정, 2013), 지각된 학업 성취도(최지혜, 박미정, 2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 건강상태(차남현, 2016), 입학동기와 입학전형방법(한미현, 2017), 스트레스 대처(이난희, 유소연, 2017),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연령, 동아리 활동 여부, 교수접촉 횟수,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정효주, 정향인, 2012),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박진아, 이은경, 2011), 문제해결능력(양남영, 문선영, 2013), 의사소통 유형(이난희, 유소연, 2017) 등이 보고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정도 수준인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15개로 설정하였을 때 199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미응답률이 10% 이상인 설문지 31부를 제외하여 총 209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Rubin (1990)의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허경호(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ICC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서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15가지 하부 구성 요소인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시 허경호(2003)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였고 홍지연과 박진아(201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등, 2003)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서 5개의 능력요소(문제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안개발 10문항, 계획/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로 구성되었고 이는 다시 9개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 5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 5문항, 원인분석-분석 5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 5문항, 대안개발-의사결정 5문항, 계획/실행-기획력 5문항, 계획/실행-실행과 모험 감수 5문항, 수행평가-평가 5문항, 수행평가-피드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4였고 지은주 등(2013)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 (1984)가 개발한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 후 권혜진(2007)이 기존의 Likert 9점 척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67문항으로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중 53번 문항은 4개의 하위척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16번 문항은 사회적응척도, 대학환경 척도에 중복하여 적용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이다. 권혜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였고, 이난희와 유소연

(201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1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4학년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1807-HR-61-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활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후 설문지는 연구자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의 보관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문서 파쇄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파쇄하여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은 ‘1학년’이 42명(20.1%), ‘2학년’이 61명(29.2%), ‘3학년’이 66명(31.6%), ‘4학년’이 40명(19.1%)이었고, 성별은 179명(85.6%)이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20.49세였다. 종교는 ‘무’가 146명(69.9%), 형제자매 수는 ‘본인포함 2명’이 142명(68%), 건강상태는 ‘좋음’이 104명(49.8%), 경제수준은 ‘중’이 172명(82.3%)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부모님 집’이 139명(66.5%), ‘자취’가 45명(21.5%), ‘기숙사’가 24명(11.5%), ‘친척 집’ 1명(0.5%)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음’이 178명(85.2%), 학업성적은 ‘3.0~3.4’가 66명(31.6%),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률’이 105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98명(46.9%), ‘만족’이 79명(37.8%), ‘매우 만족’이 19명(9.1%), ‘불만족’이 11명(5.2%), ‘매우 불만족’이 2명(1.0%)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9)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학년	1	42	20.1	20.49±2.12
	2	61	29.2	
	3	66	31.6	
	4	40	19.1	
성별	남	30	14.4	
	여	179	85.6	
연령	25세 이하	206	98.6	
	26세 이상	3	1.4	
종교	기독교	36	17.2	
	천주교	11	5.3	
	불교	15	7.2	
	기타	1	0.4	
	무	146	69.9	
형제 자매 수	본인포함1명	27	12.9	
	본인포함2명	142	68.0	
	본인포함3명 이상	40	19.1	
건강상태	나쁨	2	1.0	
	보통	103	49.2	
	좋음	104	49.8	
경제수준	하	21	10.0	
	중	172	82.3	
	상	16	7.7	
거주형태	부모님 집	139	66.5	
	자취	45	21.5	
	친척 집	1	0.5	
	기숙사	24	11.5	
동아리 활동 경험	있음	178	85.2	
	없음	31	14.8	
학업성적	모름	41	19.6	
	3.0미만	12	5.7	
	3.0이상~3.5미만	66	31.6	
	3.5이상~4.0미만	60	28.7	
	4.0이상	30	14.4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적성	68	32.5	
	부모님	19	9.1	
	취업률	105	50.2	
	수능점수	11	5.3	
	기타	6	2.9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2	1.0	
	불만족	11	5.2	
	보통	98	46.9	
	만족	79	37.8	
	매우 만족	19	9.1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8.65 ± 6.73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총점 225점 만점에 평균 163.32 ± 17.63 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에서 의사결정이 25점 만점에 19.40 ± 2.80 점으로 가장 높았고, 분석이 25점 만점에 19.33 ± 2.56 점, 문제인식이 25점 만점에 19.20 ± 2.61 점, 기획력이 25점 만점에 18.82 ± 3.20 점, 피드백이 25점 만점에 18.66 ± 2.70 점, 평가가 25점 만점에 18.66 ± 2.70 점, 정보수집이 25점 만점에 17.22 ± 2.71 점, 실행과 모험 감수가 25점 만점에 16.30 ± 3.20 점, 확산적사고가 25점 만점에 15.72 ± 2.86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총 335점 만점에 평균 231.83 ± 29.19 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하부 영역에서 학업적응은 120점 만점에 77.82 ± 11.12 점, 사회적응은 총점 100점 만점에 72.80 ± 9.21 점, 개인정서적응은 75점 만점에 49.78 ± 9.22 점, 대학환경적응은 35점 만점에 27.85 ± 4.77 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N=209)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총 범위
의사소통능력	44	75	58.65±6.73	15-75
문제해결능력	131	217	163.32±17.63	45-225
문제인식	14	25	19.20±2.61	5-25
정보수집	8	25	17.22±2.71	5-25
분석	13	25	19.33±2.56	5-25
확산적사고	8	25	15.72±2.86	5-25
의사결정	14	25	19.40±2.80	5-25
기획력	10	25	18.82±3.20	5-25
실행과 모험 감수	7	25	16.30±3.23	5-25
평가	12	25	18.66±2.70	5-25
피드백	10	25	18.66±3.11	5-25
대학생활적응	145	313	231.83±29.19	67-335
학업적응	50	113	77.82±11.12	24-120
사회적응	39	92	72.80±9.21	20-100
개인정서적응	20	74	49.78±9.22	15-75
대학환경적응	10	35	27.85±4.77	7-3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F=8.26, p<.001$), 전공만족도($F=8.2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만족이나 보통,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F=6.19, p<.001$), 전공만족도($F=9.9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을 고려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취업률을 고려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만족이나 보통,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F=20.16, p<.001$), 전공만족도($F=13.2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N=209)

특성	구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학년	1	58.55±7.25	1.33	.264	161.50±19.33	2.00	.116	238.45±30.48	1.18	.319
	2	57.51±6.76			160.15±16.01			229.74±26.87		
	3	58.80±6.44			164.35±16.79			228.43±29.29		
	4	60.23±6.53			168.35±18.80			233.69±30.84		
성별	남	59.00±7.34	0.31	.757	162.57±14.63	-0.25	.802	237.83±24.60	1.22	.225
	여	58.59±6.65			163.44±18.12			230.83±29.84		
연령	25세 이하	58.70±6.70	1.03	.304	163.35±17.71	0.26	.794	232.18±29.07	1.46	.147
	26세 이상	54.67±9.50			160.67±13.58			207.54±33.30		
종교	기독교	57.97±6.51	1.66	.161	165.44±19.43	0.88	.476	225.76±25.10	1.70	.151
	천주교	63.45±5.52			165.36±16.14			251.19±23.53		
	불교	59.60±7.39			155.93±16.32			230.85±33.99		
	기타	59			155			216		
	무	58.35±6.74			163.45±17.42			232.08±29.69		
형제 자매 수	본인포함1명	59.96±7.47	1.59	.206	169.67±18.71	4.50	.012	235.90±26.67	1.87	.157
	본인포함2명	58.08±6.55			160.87±16.63			229.20±29.11		
	본인포함3명이상	59.78±6.78			167.70±18.85			238.42±30.44		
건강상태	나쁨 ^a	55.50±10.61	8.26	<.001 (c>b)	166.00±36.77	2.68	.071	207.00±1.41	20.16	<.001 (c>b)
	보통 ^b	56.85±6.32			160.48±17.29			220.43±26.11		
	좋음 ^c	60.48±6.65			166.08±17.39			243.60±27.64		
경제수준	하	59.62±6.09	1.95	.144	167.48±21.90	0.81	.446	231.75±26.85	0.34	.714
	중	58.26±6.64			162.63±16.49			231.31±29.20		
	상	61.50±8.06			165.25±23.16			237.59±33.17		

(표 계속)

표 3. (계속)

(N=209)

특성	구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평균±표준편차	F/t	p (Scheffé)
거주형태	부모님 집	58.94±6.66	1.19	.314	162.04±17.43	0.89	.447	234.34±29.86	1.31	.271
	자취	58.38±6.80			166.96±18.85			224.44±25.32		
	친척 집	47			164			232.31		
	기숙사	57.96±6.95			163.88±16.47			231.17±31.38		
동아리활동경험	있음	58.92±6.69	1.42	.157	163.97±17.81	1.29	.198	232.26±28.86	.51	.612
	없음	57.06±6.88			159.55±16.29			229.37±31.40		
학업성적	모름	58.29±7.14	0.48	.750	160.46±18.35	1.32	.266	237.11±29.58	1.94	.105
	3.0미만	58.75±5.69			163.00±20.55			219.71±25.48		
	3.0이상~3.5미만	58.79±7.04			162.77±16.64			228.55±28.95		
	3.5이상~4.0미만	58.02±6.30			162.70±17.59			229.62±26.90		
	4.0이상	60.03±6.90			169.77±17.26			241.11±32.94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적성 ^a	60.25±7.43	1.60	.175	171.49±19.87	6.19	<.001	238.80±31.54	1.60	.176
	부모님 ^b	57.95±7.23			160.95±17.08		(a>c)	228.47±30.51		
	취업률 ^c	57.70±5.92			159.48±14.30			229.04±27.07		
	수능 점수 ^d	58.27±6.36			159.00±19.60			222.16±21.54		
	기타 ^e	59.83±9.62			153.33±13.03			229.93±39.03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a	62.50±6.36	8.26	<.001	148.00±4.24	9.99	<.001	234.66±73.05	13.28	<.001
	불만족 ^b	55.00±4.86		(e>b,c,d)	152.55±11.52		(e>b,c,d)	205.02±30.72		(d,e>b,c)
	보통 ^c	57.28±6.28			161.58±17.17			222.45±24.32		
	만족 ^d	59.06±6.54			162.28±14.55			240.60±24.94		
	매우 만족 ^e	65.68±6.17			184.42±20.57			258.99±33.30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의사소통능력과 대학생활적응($r=.60, p<.001$),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r=.34,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인식($r=.25, p<.001$), 분석능력($r=.24, p<.001$), 확산적사고($r=.21, p=.003$), 의사결정($r=.26, p<.001$), 기획력($r=.21, p=.003$), 실행과 모험 감수($r=.36, p<.001$), 평가($r=.17, p=.016$), 피드백($r=.36, p<.001$)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정보수집($r=.60, p<.001$)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N=209)

변수	대학생활적응
	$r(p)$
의사소통능력	.60(<.001)
문제해결능력	.34(<.001)
문제인식	.25(<.001)
정보수집	.04(.540)
분석능력	.24(<.001)
확산적사고	.21(.003)
의사결정	.26(<.001)
기획력	.21(.003)
실행과 모험 감수	.36(<.001)
평가	.17(.016)
피드백	.36(<.001)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의 투입 순서를 통제하는 분석 방법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값이 1.98로 나타나 독립성이 검정되었다. 또한 각 변수들의 공차 한계가 .46-1.0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이 1.00~2.19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모형 1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건강상태,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투입하였고, 모형 2에 의사소통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이들 변수의 영향력인 Adj R²값은 총 46.8%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형1에서 형성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만족도($\beta=.41, p<.001$), 건강상태($\beta=.35, p<.00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영향력인 Adj R²값은 29.6%이었다. 모형 2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의사소통능력($\beta=.41, p<.001$)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인 R²값은 14.9%증가하였다. 모형 3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피드백($\beta=.16, p=.019$), 실행과 모험 감수($\beta=.15, p=.038$), 평가($\beta=-.14, p=.034$)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인 R²값은 4.7% 증가하였다.

표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209)

모형1	변수	B	S.E.	β	t	p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¹⁾	.37	.05	.41	7.08	<.001
	건강상태 ²⁾	.31	.05	.35	5.96	<.001
$R^2=.303$, Adj $R^2=.296$, $F=44.68$, $p<.001$						
모형2	변수	B	S.E.	β	t	p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¹⁾	.29	.05	.32	5.98	<.001
	건강상태 ²⁾	.22	.05	.24	4.44	<.001
의사소통능력		.42	.06	.41	7.47	<.001
$R^2(\Delta R^2)=.452(.149)$, Adj $R^2=.444$, $F=56.33$, $p<.001$						
모형3	변수	B	S.E.	β	t	p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¹⁾	.28	.05	.31	5.77	<.001
	건강상태 ²⁾	.22	.05	.24	4.45	<.001
의사소통능력		.42	.07	.41	6.12	<.001
문제해결능력	피드백	.11	.05	.16	2.37	.019
	실행과 모험 감수	.10	.05	.15	2.09	.038
	평가	-.12	.06	-.14	-2.14	.034
	정보수집	-.06	.04	-.08	-1.43	.153
	문제인식	-.07	.06	-.08	-1.16	.247
	확산적사고	-.06	.05	-.08	-1.20	.232
	기획력	-.01	.05	-.02	-.31	.760
	의사결정	.01	.06	.02	.23	.820
	분석능력	.01	.06	.01	.16	.877
$R^2(\Delta R^2)=.499(.047)$, Adj $R^2=.468$, $F=16.25$, $p<.001$						

더미변수 1) 매우만족 또는 만족 1,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2) 좋음 1, 보통 0, 나쁨 0

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중 평균 58.65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강민아와 이수경(2016)의 연구에서는 54.90점, 신수정과 정면숙(2016)의 연구에서는 53.70점, 양선이(2016)의 연구에서는 52.50점, 염은이(2017)의 연구에서는 55.70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조인희와 박미라(2017)의 연구에서는 총점 175점 중 122.50점, 지은주 등(2013)의 연구에서는 총점 245점 중 171.9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의사소통능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며 상당수의 대학에서 간호학 교과과정에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함에 따라(김미원 등, 201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가 양호한 군이 높게 나타난 이재경(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보통으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던 황선경과 이윤지(2015), 홍지연과 박진아(2017), 지은주 등(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총점 225점 중 163.32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지은주 등(2013)의 연구에서는 154.80점이었고, 심미정과 오효숙(2012)의 연구에서는 158점이었다.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한 양남영과 문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총점 200점 중에 128점, 한승희(2017)의 연구에서는 총점 150점 중에 102.30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은 의사결정이 19.40점으로 가장 높았고, 확산적 사고가 15.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미정과 오효숙(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 중 확산적 사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암기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되어 학생 스스로 결론을 탐색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심미정, 오효숙, 20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양선희, 심인옥, 2016; 양혜주, 2013; 지은주 등, 2013),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양선희와 심인옥(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지원동기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양남영과 문선영(201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총점 335점 중 231.83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난희와 유소연(2017)의 연구에서는 214.40점, 다른 도구를 사용한 양경희, 이정란과 박복남(2012)의 연구에서는 총점 125점 중 83.50점, 차남현(2016)의 연구에서는 총점 135점 중 90.40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4가지 하위영역 중 대학환경적응이 총점 35점 중 27.8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응이 총점 120점 중 77.8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인정서적응이 총점 75점 중 49.78점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최지혜, 박미정, 2013),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현(2017)의 연구와 3개 대학의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진아와 이은경(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고 개인정서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익형과 김창현(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개인정서적응과 학업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과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므로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차남현, 2016; Pulido-Martos et al., 2012)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는 임상실습과 수업을 병행하는 교과과정 및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지체계를 통한 개인정서적응의 증진과 멘토링 등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적응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들이 보통이거나 나쁜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던 결과(송후승 등, 2016; 차남현, 2016),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곽혜원, 2018; 양경희 등, 2012; 최순옥 등, 2015).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일반대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김현숙, 강선모, 2013), 의사소통기술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박미정, 2013)와 유사하였다. 또한 일반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박미정, 2018),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양남영과 문선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곽혜원(201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9가지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을 제

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미정(2018)의 연구에서 5가지 하위요소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전체 하위요소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와 전공만족도를 1단계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29.6%였고, 의사소통능력을 2단계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14.9%증가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을 3단계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4.7% 증가하였고, 총 설명력은 46.8%였으며 의사소통능력($\beta=.41, p<.001$), 전공만족도($\beta=.31, p<.001$), 건강상태($\beta=.24, p<.001$), 피드백($\beta=.16, p=.019$), 실행과 모험 감수($\beta=.15, p=.038$), 평가($\beta=-.14, p=.034$)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일반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이현영(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난희와 유소연(2017)의 연구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대학생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대학생활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박정원과 정유희(2018)의 연구에서 배려공감형이 예민산만형보다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친구, 선·후배, 교수, 의료진, 환자와 의사소통하며 얻은 긍정적 피드백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훈련의 개발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피드백,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 연구 결과(양남영, 문선

영, 2013),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의 능력 요소 중 본 연구의 실행과 모험 감수가 하위요인으로 속한 계획·실행 능력 요소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박미정, 2018)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박미정(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계획·실행 능력 외에 다른 요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와 피드백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평가 요인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경험한데다 대학 입학 후에도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하다보니 평가에 더 민감하다(이소연, 오인수, 2015).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진로 및 취업에 성실한 노력, 다양한 활동 경험, 인맥, 학점, 외국어 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어(박수진, 구영애, 오윤자, 2017),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활동 경험 다양성, 학점, 외국어 능력 점수 등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쟁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완벽주의는 심리적 병리의 변인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Hewitt & Flett, 1991).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자기를 감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인 수행에 불만족스러워하고, 타인의 비판과 기대를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말한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 & Winkworth, 2000).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완벽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빈번한 어려움을 경험한다(Dunkley et al., 2000).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대학생활 부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어(조한익, 하정희, 2006) 본 연구에서 평가 요인이 높게 나타난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피드백 요인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하기, 문제해결에 대한 타인의 비판 수용하기, 충고를 통해 행동 개선하기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이석재 등, 2003) 평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속성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

과는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곽혜원(201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곽혜원, 2018; 양선희, 심인옥, 2016; 정승교, 2011), 자기효능감(심미정, 오효숙, 2012; 양선희, 심인옥, 2016; 양혜주, 2013), 학습 동기 및 학습태도(심미정 오효숙, 2012)와 같은 학습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곽혜원(2018)의 연구가 비판적 사고 교육기간이 짧은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피드백, 실행과 모험감수, 평가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의사소통유형으로 연구되었던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다른 요인보다도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자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피드백,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6.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피드백, 실행과 모험 감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 활동의 개발과 학생 평가 방식의 개선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현장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의 배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지라는 자기보고식 도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변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1학기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학년별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의 일부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능력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해 조사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아, 이수경. (2016).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452-461. doi:10.5977/jkasne.2016.22.4.452
- 곽혜원. (2018).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233-242.
- 권혜진. (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미원, 박정모, 한애경. (2011). 4년제 간호학과 교과과정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414-423. doi:10.5977/jkasne.2011.17.3.414
- 김선주, 김한홍. (2013).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13(3), 304-313. doi:10.5392/jkca.2013.13.12.337
- 김익형, 김창현. (2018). 대학생의 스포츠 동아리활동 참여정도가 인성역량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6(4), 519-528. doi:10.34284/kjgd.2018.11.26.4.519
- 김현숙, 강선모. (2013).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0(1), 157-176.
- 김희숙. (2006). 정서조절양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176-201.
- 문새롬. (2016).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박미정. (201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논문집**, 21(1), 27-35.
- 박미정. (2018).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

- 활적응, 대학생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27-337. doi:10.5392/jkca.2012.12.04.327
- 박수진, 구영애, 오윤자. (2017). 대학생의 진로 및 가치관에 따른 대학생들의 만족도차이에 관한 연구-K 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을 중심으로 (2013 년~ 2016 년)-. **취업진로연구**, 17(1), 121-144.
- 박신영. (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정원, 정유희. (2018).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696-709.
- 박정원, 최명숙. (2009). 간호대학생의 자의식,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3), 351-360.
- 박진아, 이은경. (20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7(3), 267-276.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박현숙, 정경순. (2013).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4), 549-557. doi : 10.5977 / jkasne.2013.19.4.549
- 배순원. (2015).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201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5(1), 40-48.
- 송후승, 나은선, 전윤희, 정귀임. (2016).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3(1), 72-81.
- 신수정, 정면숙. (2016).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인문사회**21, 7(5), 441-455.
- 심미정, 오효숙. (2012).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328-337. doi:10.5392/jkca.2012.12.06.328

- 안지연, 임희경. (2005). 여대생의 대학생활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233-239.
- 양경희, 이정란, 박복남. (2012).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5-13. doi:10.5977/jkasne.2012.18.1.005
- 양남영, 문선영. (2013).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1), 33-42. doi:10.5977/jkasne.2013.19.1.33
- 양선이. (2016).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286-296. doi:10.5392/jkca.2016.16.09.286
- 양선희, 심인옥. (2016).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창의성, 자기효능감과 간호과정 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612-622. doi:10.5392/jkca.2016.16.05.612
- 양혜주. (2013). 전문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사고개발**, 9(3), 103-118.
- 엄태완, 이기영. (2004).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5-32.
- 엄은이. (2017).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감정노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320-330.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10(2), 1-25.
- 이경화, 김은경, 유경훈. (2013). 대학생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동기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3(1), 125-139.
- 이난희, 유소연. (2017).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2), 58-66.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 능력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 이소연, 오인수.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53-75.
- 이재경. (201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눈치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현영. (2017).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정승교. (201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조사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8(1), 71-78.
- 정효주,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조인희, 박미라. (2017).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비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397-404.
- 조한익, 하정희. (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 지은주, 방미란, 전해진. (2013).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4), 571-579. doi:10.5977/jkasne.2013.19.4.571
- 차남현. (2016).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2), 124-131.
- 최순옥, 박진경, 김상희. (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2), 182-189. doi:10.5977/jkasne.2015.21.2.182
- 최지혜, 박미정. (2013). 일 지역 3 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339-349. doi:10.5392/jkca.2013.13.07.339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서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한미현. (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2(1), 36-43.
- 한승희. (2017).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245-254.

-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 언론학보**, 47(6), 380-408.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홍지연, 박진아. (2017).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문제해결과정,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429-446.
- 황선경, 이윤지. (2015).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4), 517-526. doi : 10.5977 / jkasne.2015.21.4.518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doi:10.1037/0022-0167.31.2.179
- Barbosa, P., Raymond, G., Zlotnick, C., Wilk, J., Toomey III, R., & Mitchell III, J. (2013).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training is associated with greater empathy and reduced anxiety for graduate healthcare students. *Education for health*, 26(1), 9-14. doi:10.4103/1357-6283.112794
- Cupach, W. R., & Spitzberg, B. H. (1983). Trait versus state: A comparison of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measur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7(4), 364-379. doi:10.1080/10570318309374131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doi:10.1037/0022-0167.47.4.437
- D'Zurilla, T. J., & Nezu, A. (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 201-274.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2), 156-163. doi:10.1037/1040-3590.2.2.156
- Ericson, P. M., & Gardner, J. W. (1992). Two longitudinal studie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its effects on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cation Quarterly*, 40(2), 127-137. doi:10.1080/01463379209369828
- Griffin, P., & Care, E. (Eds.). (2014).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Methods and approach*. Dordrecht: Springer.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doi:10.1037/0022-0167.29.1.66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doi:10.1037/0021-843x.100.1.98
- Hillage, J., Uden, T., Aldridge, F., & Eccles, J. (2000). *Adult Learning in England: A Review. 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 Report 369*. Leicester: College Hill Press.
- Kahney, H. (1986). *Problem solving: A cognitive approach*.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 McKay, M., Davis, M., & Fanning, P. (1995).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Pulido-Martos, M., Augusto-Landa, J., & Lopez-Zafra, E. (2012).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1), 15-25. doi:10.1111/j.1466-7657.2011.00939.x
- Rubin, R. B. (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94-129.

Satir, V.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Shaban, I. A., Khater, W. A., & Akhu-Zaheya, L. M. (2012).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sources and coping behaviour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training: A Jordanian perspectiv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2(4), 204-209. doi:10.1016/j.nepr.2012.01.005

Smith, M. U. (1988). *Toward a Unified Theory of Problem Solving: A View from Biology*. London: Routledge.

Thomas, R. K. (2006). *Health communication*.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Waldner, M. H., & Olson, J. K. (2007).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4(1), 1-14. doi:10.2202/1548-923x.1317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사항은 연구자(최진주: 010-8922-1861)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나는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인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 받았다.
 2.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연구인이 참여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피험자나 대리인에게 즉시 알려질 것이며 연구 도중 참여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다.
 3. 나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해하였기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참여인 서명: (인)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자: 최진주

1) 일반적 특성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현재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나이는? 만_____세
4.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없음
5. 귀하의 형제 자매 수는?
① 본인포함 1명 ② 본인포함 2명 ③ 본인포함 3명이상
6.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나쁨 ② 보통 ③ 좋음
7. 귀하의 경제수준은? ① 하 ② 중 ③ 상
8. 귀하의 거주형태는?
① 부모님집 ② 하숙 ③ 자취 ④ 친척집 ⑤기숙사
9. 귀하의 동아리 활동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10. 귀하의 학업성적은?
① 평균 평점 4.0 이상 ② 평균 평점 3.5 ~ 3.9
③ 평균 평점 3.0 ~ 3.4 ④ 평균 평점 2.9 이하
11.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②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③ 취업률을 고려하여
④ 수능 점수에 맞춰서 ⑤ 기타:_____
12.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의사소통능력

귀하는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항목도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항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5	4	3	2	1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다.	5	4	3	2	1
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5	4	3	2	1
4	나는 내 권리를 위해 일어난다.	5	4	3	2	1
5	나는 대화 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5	4	3	2	1
6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5	4	3	2	1
7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5	4	3	2	1
8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5	4	3	2	1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5	4	3	2	1
10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5	4	3	2	1
11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5	4	3	2	1
12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5	4	3	2	1
13	나는 대화도중 상대의 대화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5	4	3	2	1
14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고 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5	4	3	2	1
15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	4	3	2	1

3) 문제해결능력

여러분은 수업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의견 충돌, 친구와의 말다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하였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아래에 있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각각의 행동을 하는 정도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자주	자주	보통	드물 게	매우 드물 게
문제 인식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5	4	3	2	1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5	4	3	2	1
	3)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다.	5	4	3	2	1
	4)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5	4	3	2	1
	5) 내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	5	4	3	2	1
정보 수집	1)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5	4	3	2	1
	2)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내용만 찾는다.	5	4	3	2	1
	3)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5	4	3	2	1
	4) 내 나름대로 정답을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만을 찾는다.	5	4	3	2	1
	5) 나에게 친숙한 방법으로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5	4	3	2	1
분석 능력	1)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한다.	5	4	3	2	1
	2) 어떤 문제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5	4	3	2	1
	3) 나의 입장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한다.	5	4	3	2	1
	4)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에 경험해본 적이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5	4	3	2	1
	5)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본다.	5	4	3	2	1

	항 목	매우 자주	자주	보통	드물 게	매우 드물 게
확 산 적 사 고	1)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다.	5	4	3	2	1
	2)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나의 문제를 연관시켜본다.	5	4	3	2	1
	3)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5	4	3	2	1
	4)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들도 중요하게 다룬다.	5	4	3	2	1
	5)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5	4	3	2	1
의 사 결 정	1)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화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5	4	3	2	1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들이 새롭고, 적절한 것인지를 서로 비교하여 본다.	5	4	3	2	1
	3) 여러 문제해결방법들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5	4	3	2	1
	4)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5	4	3	2	1
	5) 그동안 사용했던 문제해결방법들이 노력한 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비교한다.	5	4	3	2	1
기 획 력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한다.	5	4	3	2	1
	2)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둔다.	5	4	3	2	1
	3)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운다.	5	4	3	2	1
	4) 일정대로 계획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	5	4	3	2	1
	5)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5	4	3	2	1
실 행 과 도 험 감 수	1)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정한 것은 끝까지 한다.	5	4	3	2	1
	2) 이전의 경험이나 해오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	5	4	3	2	1
	3)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문제를 해결한다.	5	4	3	2	1
	4)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5	4	3	2	1
	5) 지금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본다.	5	4	3	2	1

	항 목	매우 자주	자주	보통	드물 게	매우 드물 게
평가	1)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5	4	3	2	1
	2)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5	4	3	2	1
	3)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정말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본다	5	4	3	2	1
	4)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 본다.	5	4	3	2	1
	5) 처음 해결하려고 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5	4	3	2	1
피드백	1)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5	4	3	2	1
	2)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5	4	3	2	1
	3)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도 받아들인다.	5	4	3	2	1
	4)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충고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바꾼다.	5	4	3	2	1
	5)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5	4	3	2	1

4) 대학생활적응

다음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여러분의 생각과 상태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대학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5	4	3	2	1
2	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5	4	3	2	1
3	나는 지금까지 학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5	4	3	2	1
4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5	4	3	2	1
5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다.	5	4	3	2	1
6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5	4	3	2	1
7	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5	4	3	2	1
8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5	4	3	2	1
9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5	4	3	2	1
10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	5	4	3	2	1
11	나는 근래에 피곤할 때가 많다.	5	4	3	2	1
12	홀로 선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5	4	3	2	1
13	나는 지금의 학업 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5	4	3	2	1
14	나는 교수님과 비공식적,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5	4	3	2	1
15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	5	4	3	2	1
16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5	4	3	2	1
17	나는 학과공부에서 해야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5	4	3	2	1
18	나는 대학에서 몇몇 가까운 대인관계적 유대를 맺고 있다.	5	4	3	2	1

문 항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5	4	3	2	1
20	나는 최근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없다.	5	4	3	2	1
21	사실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 낼 만큼 똑똑하지는 못하다.	5	4	3	2	1
22	집이 그리운 것이 지금 나의 어려움 중 하나다.	5	4	3	2	1
23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5	4	3	2	1
2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5	4	3	2	1
25	나는 공부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5	4	3	2	1
26	나는 기숙사(하숙, 자취 등)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해당 안 될 경우 생략)	5	4	3	2	1
27	나는 수업의 일부인 레포트(보고서)쓰는 것이 즐겁다.	5	4	3	2	1
28	나는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5	4	3	2	1
29	최근에 사실 나는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5	4	3	2	1
30	나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과외활동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5	4	3	2	1
31	나는 최근 학교상담소나 교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5	4	3	2	1
32	나는 근래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5	4	3	2	1
33	나는 같은 방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해당 안 될 경우 생략)	5	4	3	2	1
34	나는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한다.	5	4	3	2	1
35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혹은 늘었다)	5	4	3	2	1
36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수와 종류에 만족한다.	5	4	3	2	1
37	나는 대학에서 잘 어울려 지낼 만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5	4	3	2	1
38	나는 최근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5	4	3	2	1

문 항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9	최근 나는 공부를 하려할 때 주의집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4	3	2	1
40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5	4	3	2	1
41	나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 다.	5	4	3	2	1
42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5	4	3	2	1
43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 서 만족한다.	5	4	3	2	1
44	나는 강의에 어김없이 출석한다.	5	4	3	2	1
45	때때로 생각이 쉽게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5	4	3	2	1
46	내가 대학 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 리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만 족한다.	5	4	3	2	1
47	나는 대학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학교를 계 속 다닐 것이다.	5	4	3	2	1
48	나는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지 못하 다.	5	4	3	2	1
49	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 이 된다.	5	4	3	2	1
50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5	4	3	2	1
51	나는 최근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5	4	3	2	1
52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다.	5	4	3	2	1
53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 한다.	5	4	3	2	1
54	나는 이번 학기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 족한다.	5	4	3	2	1
55	요즈음 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5	4	3	2	1
56	못마땅하게도 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 른 것 같다.	5	4	3	2	1
57	이모저모로 볼 때,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5	4	3	2	1
58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대학 에서의 학과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 다.	5	4	3	2	1

문 항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9	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5	4	3	2	1
60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5	4	3	2	1
61	나는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5	4	3	2	1
62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63	나는 어떤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몇 있다.	5	4	3	2	1
64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4	3	2	1
65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5	4	3	2	1
66	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상태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	5	4	3	2	1
67	나는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5	4	3	2	1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hoi, Jin Joo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Eun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skill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nursing students, and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from March 11, 2019 to March 26, 2019 and 209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instruments were used for the study were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Skills,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ean valu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58.65 ± 6.73 out of 75, problem solving skills was 163.32 ± 17.63 out of 225,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was 231.83 ± 29.19 out of 33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erms of health condition ($F=20.16$, $p<.001$) and satisfaction about the major ($F=13.28$, $p<.001$).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60$,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problem solving skills ($r=.34$,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problem recognition ($r=.25$,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nalytic ability ($r=.24$,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widespread thinking ($r=.21$, $p=.003$);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

nd decision making($r=.26$,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planning ability($r=.21$, $p=.003$);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cting and taking risks skills($r=.36$, $p<.001$);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evaluation skills($r=.17$, $p=.016$); betwee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feedback skills($r=.36$, $p<.001$).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communication competence($\beta=.41$, $p<.001$), satisfaction about the major($\beta=.31$, $p<.001$), health condition($\beta=.24$, $p<.001$), feedback skills($\beta=.16$, $p=.019$), acting and taking risks skills($\beta=.15$, $p=.038$), and evaluation skills($\beta=-.14$, $p=.034$), explaining 46.8% of the variance in the regression model.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satisfaction about the major, health condition, feedback skills, acting and taking risks skills of nursing students manifested the lower the evalu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and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his regard, in order to enhance the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it is required to provide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communication competence, satisfaction about the major, and their health statu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develop program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feedback skills and acting and taking risk skills to enhance the problem-solving skil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 and method for nursing students.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 진 주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이 은 숙)

(초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 11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D시에 위치한 2개 대학 1,2,3,4학년 간호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에 평균 58.65 ± 6.73 점, 문제해결능력은 총점 225점에 평균 163.32 ± 17.63 점, 대학생활적응은 총

점 335점에 평균 231.83 ± 29.19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건강상태($F=20.16, p<.001$), 전공만족도($F=13.2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r=.60, p<.001$), 문제해결능력($r=.34, p<.001$),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인식($r=.25, p<.001$), 분석능력($r=.24, p<.001$), 확산적사고($r=.21, p=.003$), 의사결정($r=.26, p<.001$), 기획력($r=.21, p=.003$), 실행과 모험 감수($r=.36, p<.001$), 평가($r=.17, p=.016$), 피드백($r=.3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beta=.41, p<.001$), 전공만족도($\beta=.31, p<.001$), 건강상태($\beta=.24, p<.001$), 피드백($\beta=.16, p=.019$), 실행과 모험 감수($\beta=.15, p=.038$), 평가($\beta=-.14, p=.034$)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46.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피드백, 실행과 모험 감수 능력이 높을수록, 평가 능력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인 중 중 피드백, 실행과 모험 감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학생 평가 방식의 개선과 다양화가 필요하다.